

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7. 27.(화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
담당과장	이옥헌 과장(044-203-5150)	담당자	권주현 사무관(044-203-5151)

## 최대전력수요 전망 관련 비교 · 설명

**- 중장기 계획과 단기 수급계획간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-**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올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하여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단기 전력수급계획간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한 언론보도에 대해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.

### 중장기 · 단기 수급계획간 수요전망 비교

-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여름철 · 겨울철 단기 전력수급계획은 수립목적 · 전망방식 · 입력전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  - (중장기 계획)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15년 동안의 적정 발전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경제성장률, 산업구조, 인구 및 기온 전망 등 중장기 추세를 고려하여 기준수요를 전망함
    - 이를 기준으로 공급 불확실성, 수요예측 오차 등을 고려하여 설비 예비율 17~22% 수준으로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함
  - (단기계획) 단기전력수급계획은 연중 최대전력수요가 기록되는 여름 ·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폭염 등 기온전망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 및 상한수요를 함께 전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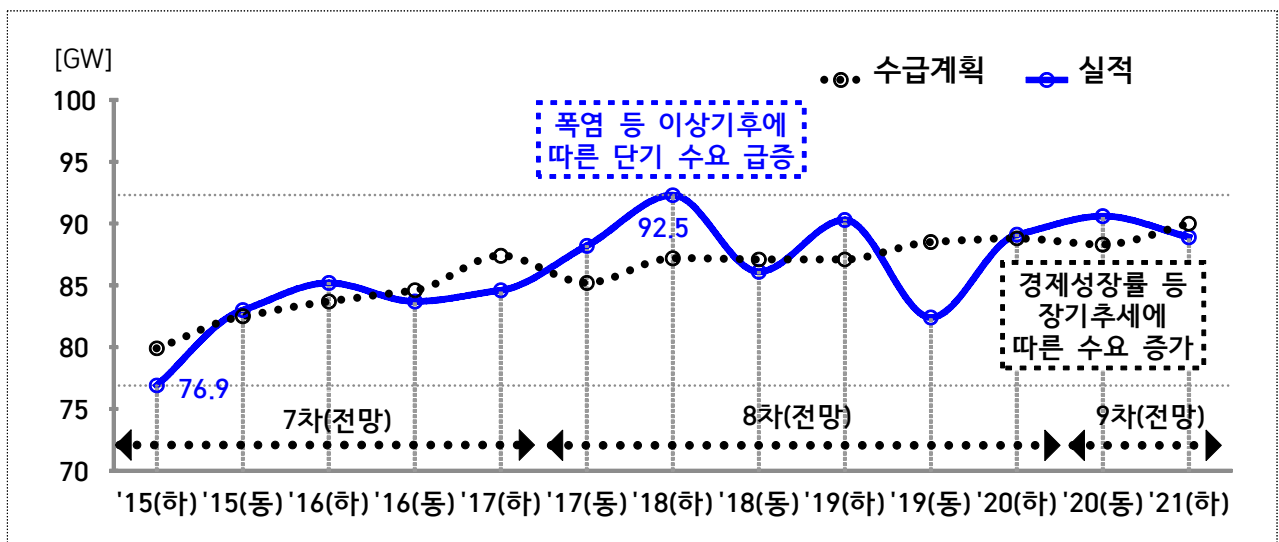
- 설비고장, 폭염 및 혹한에 따른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예비력 저하에도 안정적 수급운영을 위해 시운전, 태양광 연계 ESS 충방전 시간 변경, DR 등 추가예비자원을 확보하여 대응함

< 최대전력수요 전망 비교 >

구 분	증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	단기 전력수급계획
수립목적	장기 발전설비규모 도출 및 확충	동·하계 피크 관리
입력전제	경제성장률, 산업구조, 인구 및 기온전망	기온, 주별 요일특성, 경제성장률 등
최대전력	기준수요 전망	기준 및 상한수요 전망 (밴드전망)
오차대응	설비에비율(17~22%) 활용	추가 예비자원 확보·대응

- 또한, 과거 증장기 수급계획에서 전망한 연도별 최대전력수요와 실적치를 비교하면, 여름·겨울 특정시점의 최대전력수요는 기본적으로 증장기 수급계획에서 전망한 최대전력수요를 추세선으로 따라가고 있음
- 다만, '18년도 여름과 같이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단기 수요급증, '19년도 겨울과 같이 유례없는 온화한 기온으로 인한 낮은 수요 등 장기 최대전력수요 추세를 벗어난 특이점이 기록되기도 함

< 증장기 수급계획상 최대전력수요 전망 및 실적 비교 >



☞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는 추세선이라면, 여름·겨울철 특정시점의 최대전력수요는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특이점

- 올 여름철은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, 국내 경제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높은 전력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음

##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간 비교 및 향후계획

- 한편, 7~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요전망이 다소간 변화하는 것은 동일 모형\*을 사용하였으나, 수립 시점에 공식 발표된 입력변수\*\* 반영과 함께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과임

\* (전력소비량 전망) 전력패널모형, (최대전력 전망) 거시모형 사용

\*\* 기획재정부·KDI·기상청·통계청 등 권위있는 기관에서 공식발표한 수치를 반영  
 ([GDP 성장률 전망(연평균)] 7차 3.06%, 8차 2.43%, 9차 2.06%)

- 산업부는 “향후 빈번해지는 기상이변,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 및 전기화 수요 등 전력정책 환경 변화를 종합 고려하여 전력 수요 전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·개선해나가겠다.”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권주현 사무관(☎ 044-203-51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